

2026

하계대성회

강 / 의 / 노 / 트

열방을 향하여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자

창 18:19, 시 89:14, 사 11:10, 12, 60:1-3, 62:1-2

8월 3일(월) - 6일(목) | 여주 평강제일연수원



연수원 이용안내

1. 예배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짐 없이 참여해 주시고, 30분 전에 모리아 성전 등 예배 장소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소 사용

- 1) 숙소는 반드시 등록할 때 배정된 숙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리아 성전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성도가 이용하며, 중학생 이상 남자분들은 시온성전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결

- 1) 매일 오전 8:00-8:30까지 숙소 및 외부 청소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성회를 위해서 각자 주변의 숙소뿐 아니라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도처 이용 안내

- 1) 엔게디 동굴: 07:00 - 22:30, 예배 시간 외에 이용 가능합니다.
- 2) 십자가 제단: 24시간 개방함으로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5. 의무실

대성회 기간 중 몸이 불편하신 분은 우림 의무실을 이용 바랍니다.

6. 셔틀버스 운행

연수원에서 일신역까지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기차시간 30분전까지 연수원 입구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 여주		여주 → 서울	
청량리 출발	일신 도착	일신 출발	청량리 도착
-	-	06:27	07:21
07:34	08:34	07:47	08:39
11:35	12:31	09:40	10:30
-	-	12:12	12:58
19:10	20:09	17:10	18:04
20:32	21:26	19:17	20:09

2026 하계대성회 일정안내

	8월 3일(월)	8월 4일(화)	8월 5일(수)	8월 6일(목)
5:40-6:00		내 주께 찬양		
6:00-7:00		새벽예배		
7:00-9:00		아침 식사 및 청소		
9:00-9:30		내 주께 찬양		
9:30-10:30		구속사 강의 2 노아 홍수와 안식 유근영 선교사	평강의 날 감사 예배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영어·일어판 출판 감사 (영상설교)	구속사 강의 7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박예복 목사
10:30-10:40		휴식		휴식
10:40-11:30		구속사 강의 3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 속죄소 이명심 선교사		폐회예배 (목요구국예배)
11:30-13:00		점심 식사		
13:00-13:30		내 주께 찬양	내 주께 찬양	대청소 후 귀가
13:30-14:30		구속사 강의 4 가나안 정복과 거룩한 진멸, 헤렘으로 보는 하나님의 소유와 죄의 제거 김형주 전도사	구속사 강의 5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강정은 선교사	
14:30-15:40	구속사, 잇다	휴식(14:20-14:30) REUNITE (14:30-17:30)		
15:40-17:00	기도와 교제 (브엘세바 버스킹)			
17:00-19:00	저녁 식사			
19:00-19:30	내 주께 찬양		찬양기도회(샤론) (19:00-19:40)	
19:30-20:30	개회예배	구속사 God Talent 장기자랑 (19:20-21:30)	수요예배 구속사 강의 6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채희선 목사	
20:20-20:30	휴식			
20:30-21:30	구속사 강의 1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한세웅 목사		기도와 교제 (브엘세바 버스킹)	

언약에서 종말까지

완성을 향해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

1강 부르심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창 12:1-3)

- 한세웅 목사

구속사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연고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이야기가 열립니다. 이후 전개될 모든 구속사가 이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뻗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2강 하나님의 시간표(노아)

노아 홍수와 안식

(마 24:38-39)

- 유근영 선교사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듯,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는 정확한 때를 따라 진행됩니다. 노아 홍수의 일정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임재, 거룩, 왕국의 이야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한 계획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대성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4강 거룩

가나안 정복과 거룩한 진멸, 헤렘으로 보는 하나님의 소유와 죄의 제거

(신 7:1-6)

- 김형주 전도사

가나안 족속 정복 전쟁의 진멸, 곧 헤렘의 의미를 살피고, 그 심판과 구별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 성도의 죄성 제거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흐름을 조명합니다.

5강 헤세드(정리)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시 136:1-26)

- 강정은 선교사

여기서 한 번 흐름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시편 136편은 창조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까지를 노래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합니다. 부르심부터 거룩에 이르기까지, 앞선 강의들이 결국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였다는 것을 정리해주는 자리입니다.

3강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 속죄소

(출 25:21-22)

- 이명심 선교사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직접 만나고자 하십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였습니다. 속죄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약속은 이렇게 임재로 구체화됩니다.

* 전체 흐름 요약 *

2강(노아)이 구속사 전체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진행됨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3강부터는 그 계획이 **임재, 거룩, 왕국**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따라갑니다.

5강(**헤세드**)이 그 과정을 한 번 묶어주며, 마지막 7강(**완성자 그리스도**)에서 모든 흐름이 십자가로 수렴되며 대성회가 마무리됩니다.

6강 왕국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삼하 23:39)

- 채희선 목사

헤세드로 정리된 시선을 안고, 이제 그 신실하심이 다윗 왕국에서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 이야기는 장차 오실 참 왕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을 구약 안에서 미리 보여줍니다. 명단 끝에 이방인 우리아가 들어 있다는 점도, 구속이 결국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7강 완성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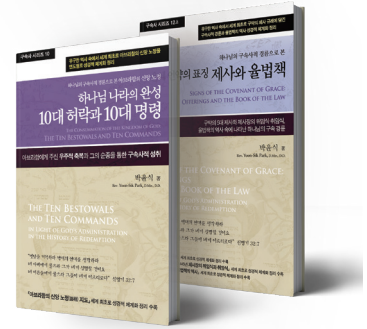
- 박에녹 목사

아브라함의 부르심, 노아 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죄소의 임재, 가나안의 거룩, 시편의 헤세드, 다윗 왕국까지 이 모든 흐름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구속사는 완성되고, 대성회는 그 완성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강의 1 | 한세웅 목사

화목을 위한 통로, 제사장 아브라함

창 12:1-3 / 구속사 시리즈 제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구속사 시리즈 제12권¹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외

창세기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²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³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서론: 참된 화목의 시작-복의 _____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구속사(History of Redemption)’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잃어버린 장자 _____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 독생자 _____를 통해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점진적인 _____계획이다.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때에 맞게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_____언약을 체결하신 인물이 바로 _____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그 _____’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내리신다.

창세기 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³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_____과의 화목과 _____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_____이라는 신성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신성한 _____이 되어, 아브라함과 _____복을 받는 것이 ‘참된 화목’이다.

1. 화목을 향한 첫 걸음: _____ 제사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목’은 결코 _____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의 명령에 _____ 할 때 주어진다.

고린도후서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다’: (헬) ‘카탈랏쏘’(καταλλάσσω) - _____ 하다, 바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화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_____ 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_____ 의 은혜와 맞바꾸어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 친히 _____ 제물이 되셔서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명령에 _____ 하셨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12: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온전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정적인 관문들이 있다.

1) _____ 과 _____ 의 자리를 _____ 없이 떠나는 순종

사도행전 7:2-4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³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 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 세속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서 철저하게 거룩한 _____ 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_____ 과 _____ 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한 이유

육신의 아버지 _____ 를 향한 혈연적 _____ 과 인간적인 _____ 때문

데라(דֵּרָא): _____ 하다, _____ 하다

창세기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속	거룩
땅의 본토	_____의 본향
친척	_____들의 총회
육신의 아비 집	_____아버지의 집

2) 가나안 한복판에서 여호와와 _____을 부른다: 참된 _____의 선포

창세기 12: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부르다’ (히) ‘카라’(קָרָא): _____하다, 크게 _____.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_____한복판에서 _____을 쌓고 하나님의 _____을 크게 불렀을 때, 에덴동산 이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영적 _____, 즉 참된 _____를 통한 화목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_____되기 시작했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⁷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2. 영원한 _____을 통해 발견한 _____과 _____의 소망

제사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 중 경험한 _____번의 위대한 영적 _____이 있었기 때문이다.

1) _____와의 만남: 독자 _____을 바치게 한 _____의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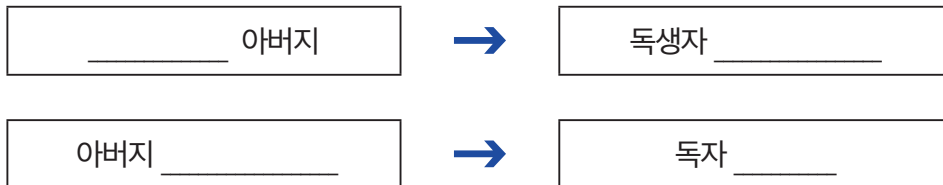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_____로 드림으로 그의 제사를 _____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영원한 _____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영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 11: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친히 화목제물 되시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_____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신하고 _____하였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_____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 만이 자신이 가장 애착을 두는 _____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_____를 드릴 수 있다.

2) _____과의 만남: 썩지 아니할 _____한 몸을 즉시 입는 _____의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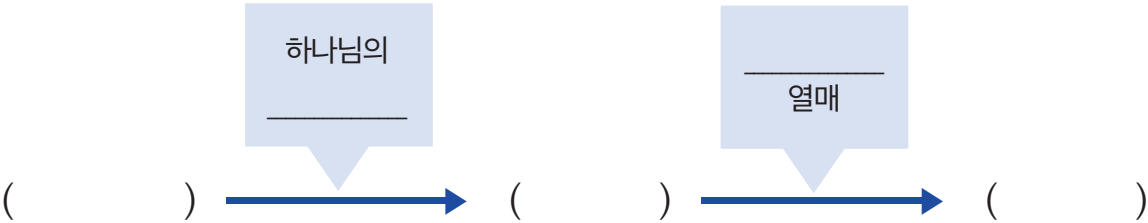
제사장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는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전에, 이미 또 하나의 신비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다.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그가 경험한 '멜기세덱'과의 만남인 것이다.

창세기 14:18-19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¹⁹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7:2-3	이사야 9:6
① _____ 의 왕	① 한 _____
② _____ 의 왕	② 한 _____
③ _____ 도 없고 _____ 도 없는 자	③ _____
④ 땅에 _____ 가 없는 자	④ _____
⑤ _____ 한 날과 _____ 의 끝이 없는 자	⑤ 전능하신 _____
⑥ 하나님의 아들과 _____ 한 자	⑥ 영존하시는 _____
⑦ 항상 _____ 으로 있는 자	⑦ _____ 의 왕

시편 110: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인간의 영적 상태>



_____의 신앙을 넘어, 살아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_____의 신앙으로!

고린도전서 15:51-53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⁵²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⁵³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3. 화목제에 나타난 _____의 _____적 화목

1) 기한 내에 _____는 은혜: 성도의 참된 _____

레위기 7:15-17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¹⁶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¹⁷ 그 희생의 고기가 제 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찌니”

명칭	내용	제사인이 희생의 고기를 먹는 기한
①	_____에 대한 감사	_____에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_____두지 않아야 함
②	서원의 _____	_____간 먹고, 남으면 _____일 째에 불사를
③	_____으로 자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반드시 _____내에 먹도록 하신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제사인의 몫을 많은 _____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 간에 _____와 _____를 도모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_____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⁴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의 참된 교제는 _____적인 친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_____과 _____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다.

2)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_____의 축복

창세기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화목제의 정신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때, 우리의 ‘동서남북’으로 _____케 하시고,
_____ 채워주시는 _____의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동서남북’의 축복은 가장 _____로운 땅,
_____에 있다.

창세기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 _____을 품는 제사장이여, 종말의 아브라함 _____을 회복하라.

창세기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_____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온 _____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화목을 위해 부르심 받은**
_____들이다.

※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의 사명

(1) 세상에 _____을 박지 않고 즉시 떠날 수 있는 영적 _____의 삶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화려한 성을 쌓지 않고 _____을 쳤다. 나그네는 결코 이
세상에 _____의 집을 견고하게 짓지 않는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_____(히 11:16)’을 사모하며, 이 땅에 박힌 말뚝들
을 _____를 통해 하나하나 뽑아내는 신령한 _____이다.

(2) 하나님의 _____ 말씀을 가르치고, _____의 신앙 전수에 힘써야 한다.

에스겔 44: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

창세기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_____년 동안 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_____과 _____를 가르치며, _____의 신앙을 전수하였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_____하라!

신명기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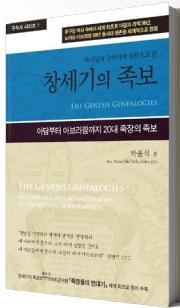
종말의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신령한 _____의 장막’이 되어, _____의 신앙으로 _____언약을 성취해가며, 참된 _____을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강의 2 | 유근영 선교사

노아 홍수와 안식

마 24:38-39 /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의 족보」



마태복음 24:38-39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1. 1년이 360일인 노아 홍수 달력

창세기 7:11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세기 8:4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7:24 “물이 일백 오십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 2월 17일~7월 17일까지 ‘150일’ <다섯 달 × 30일>

2. 노아 홍수 일정을 통해 본 달력

일정	날짜 / 요일	성경구절
방주에 들어간 날	노아 600세 2월 10일(일요일)	(창 7:7) ... 방주에 들어갔고(창 7:10)
홍수가 시작된 날	노아 600세 2월 17일(일요일)	(창 7:10-11)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땅에 있던 40일	노아 600세 2월 17일(일요일) ~ 3월 26일(목요일)	(창 7:17) 홍수가 땅에 사십일 을 있었는지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	노아 600세 7월 17일(수요일)	(창 7: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창 7:19)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창 7: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 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창 7:24) 물이 일백 오십일 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창 8:4) 칠월 곧 그 달 십칠일 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날	노아 600세 10월 1일(일요일)	(창 8:5)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달 일일 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낸 날	노아 600세 11월 11일(금요일)	(창 8:6-7)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⁷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날	노아 600세 11월 18일(금요일)	(창 8:8-9)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날	노아 600세 11월 25일(금요일)	(창 8:10)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날	노아 600세 12월 2일(금요일)	(창 8:12)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물이 건히고 방주에 뚜껑을 제친 날	노아 601세 1월 1일(안식일)	(창 8:13) 육백 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 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건혔더니
방주에서 나온 날	노아 601세 2월 27일(안식일)	(창 8:14-16) 이월 이십칠일 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에서 나오고

- 노아 600세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 601세 2월 27일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일요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남, 총 377일 '54번의 안식일'>

3. 제2 창조와 안식

① 150일 창일한 물의 과정 마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 <7월 17일 수요일>

- 최악된 세계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제2 창조 사역 준비

창세기 8:4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 ‘아라랏’: 창조의 산, 거룩한 산, 살아있는 산, 신령한 에덴동산

- ‘머물렀으며’: 히브리어 ‘누아흐’- 쉬, 안식

②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건진 것을 본 날, ‘안식일 <노아 601세 1월 1일>’

창세기 8:13 “...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 ‘제치고’: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③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에 선 날, ‘안식일 <노아 601세 2월 27일>’

창세기 8:14 “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 ‘말랐더라’: 히브리어 ‘야베쉬’- dry, 바짝 마른 땅

창세기 8:20-21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²¹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

- ‘향기’: 히브리어 ‘레야흐 니호아흐’ - 안식의 향기

4. 심판을 이기고 안식에 이른 신앙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

마태복음 24: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신앙

- 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안식일 지난’ 다음날 일요일 <2월 10일>
- ② 7일 주기로 비둘기를 내보낸 날, ‘안식일 전’ 금요일 <11월 18일, 25일, 12월 2일>
- ③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날 ‘안식일’ <노아 601세 2월 27일>

2) 빈틈없는 방주를 예비한 신앙

창세기 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잣나무’: 20-30m 곧게 자람.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음(왕상 5:10 솔로몬 성전 재목)
- ‘역청’: 방주에 틈을 완벽하게 막는 방수제 역할

에베소서 4: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 ‘틈’: 헬라어 ‘토포스’- 얇은 틈이 아닌 확보된 넓은 장소
- 사단에게 넓은 장소와 기회를 내어준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3-6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책을 의논하매** ⁵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⁶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① 빈틈없이 안팎으로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 ‘역청’: 히브리어 ‘코페르’- 덮다, 죄를 속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② 빈틈없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32:6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③ 빈틈없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수고

고린도전서 15:57-5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⁵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결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의 최종 성취 때까지 '보존'되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창세기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 ‘나의 신’: 히브리어 ‘루아흐’- 바람, 영, 생기

창세기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 ‘권념’: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

- ‘바람’: 히브리어 ‘루아흐’- 바람, 영, 생기

창세기 7:23 “...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창세기 8:1 “...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창세기 9:8 “...(무지개 언약)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시편 18:15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밀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 ‘콧김’: 히브리어 ‘루아흐’ - 바람, 영, 생기

-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요한복음 20:21-22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²²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 ‘숨’: 헬라어 ‘엠포사오’, (창 2:7) ‘생기’

- (요 20:19) ‘**제자들이... 모인 곳**’

사도행전 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²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바람’: 헬라어 ‘프로에’- 숨, 생기
- (행 2:1)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이사야 11:6-9 “...⁸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⁹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빌립보서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⁵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⁶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⁷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강의 3 | 이명심 선교사**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자리,
속죄소**

출 25:21-22 /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외



출애굽기 25:21-22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²²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 직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막 기구와 성막의 식양을 주셨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이다.
이것은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였다(출 25:21-22).



1. 속죄소란 무엇인가?

1) 단어의 의미

속죄소(贖罪所)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תִּכְפֹּֿרֶֿת)이며, ‘덮다’, ‘속죄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파르’(כָּפַר)에서 유래하였다. 곧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의미이다.

속죄는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seat(KJV), 중국어 성경에서는 시은좌(施恩座), 곧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번역된다.

2) 식양과 모양

- ① 정금으로 만들었다(출 25:17).
- ② 길이는 2.5규빗(114cm), 너비는 1.5규빗(68.4cm)으로 언약궤와 규격이 같고, 완전히 밀착되어 언약궤 위에 얹었다(출 25:17, 21).
- ③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두 그룹을 만들되,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하였다(출 25:19).
- ④ 두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다(출 25:20).

2. 왜 속죄소가 필요한가?

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아드’(יָדָע)와 ‘거기서’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 ‘삼’(שָׁם)이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곳이 바로 언약궤 위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속죄소였고, 거기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말씀하셨다(민 7:89).

- 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다.
- ②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였다.
- ③ 속죄소 없이 언약궤를 잘못 보면 죽임을 당했다.

- 벤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다가 큰 화를 입었다(삼상 6:19).
- 대제사장도 매년 대속죄일에 향의 연기로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려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레 16:12-13).

2)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소가 ‘죄를 사함받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그곳에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기 때문이다(레 16:14-15).
하나님께서서는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죄를 간과해주신다(출 12:13, 23).

- 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렸다.
- ② 다음으로 속죄소 앞에 그 피를 일곱 번 뿌렸다.
- ③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도 동일한 방법으로 뿌렸다.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속죄소를 통해 죄인을 다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 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끝까지 이어 가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요 1:14).

3)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은 썩어질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안 되며,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벧전 1:18-19).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정결한 예수님께서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 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요 1:29).
- ②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히 9:12, 히 10:14).
- ③ 예수님은 참 속죄소가 되셨다(롬 3:25).

3. 참 속죄소를 통해 변화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출애굽기 25:18-19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¹⁹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다. 속죄소 자체의 정금을 망치로 쳐서 만든 것으로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참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이다.

1)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를 나타내게 된다.

출애굽기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 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벧전 1:15-16).
- ② 서로 얼굴을 마주한 것은 혼자나 하나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엡 4:3).
- ③ 시선이 속죄소를 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다(히 4:14-16, 12:2).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를 나타내는 성도로 변화시키신다(겔 36:26-27, 빌 2:13).

2)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 ①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피조물이며 구속 역사를 섬기는 존재이다.
- ② 에덴동산의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었다(창 3:24).
- ③ 그룹이 가진 지성, 용기, 충성, 통찰력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다(겔 1:10, 10:14).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롬 8:29).

3)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을 전하게 된다.

- 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두 그룹, 또는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났다(시 80:1, 99:1, 삼상 4:4, 히 9:5).
- ② 하나님의 말씀은 두 그룹, 또는 그룹들 사이에서 선포되었다(출 25:22, 민 7:89, 겔 10:5).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엡 1:22-23).

결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주권을 은혜로 나타내는 말씀의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3:16 “...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지 않으신다. 언약궤가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참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언약궤 안의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주권,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속죄소로 덮게 하신 것은 오직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먼저 각자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위에 서서 은혜를 앞세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골 3:17).

우리가 참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주권을 은혜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말씀의 교회들을 통하여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강의 4 | 김형주 전도사

가나안 정복과 거룩한 진멸, 헤렘으로 보는 하나님의 소유와 죄의 제거

신 7:1-6 /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헛불 언약의 성취 10대 제양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신명기 7: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은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³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것은 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⁵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⁶ 너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서론

“이 세상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가나안 진멸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혹한 전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다.

1. 헤렘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언한다.

1) 헤렘(חֶרֶם)의 정의

개역한글 성경에서 ‘진멸’로 번역된 헤렘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인간의 소유와 사용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제외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헤렘은 하나의 기본 의미를 가지지만,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것이다.

레위기 27: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헤렘으로 구별된 것은 인간이 임의로 되돌리거나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멸된 것이다.

신명기 7장 2절과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헤렘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인간의 전리품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거나 하나님께 귀속시키라는 뜻이다.

이 두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소유권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다.

2) 여리고 사건 –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 원리

여호수아 6장 17-21절에는 ‘헤렘’ 계열의 표현이 명사 4회, 동사 2회, 모두 여섯 차례 반복되는데, 그중 네 차례가 18절 한 절에 집중되어 있다.

여호수아 6:18-19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¹⁹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공간에 들일찌니라”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는 반복된 경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유혹이 컸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사람과 가축은 진멸되고, 성읍과 일반 재물은 불살라졌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와의 공간에 귀속되었다.

3) 진멸 명령의 의미와 한계

이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최종적 소유권과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한 사건이자 특정 구속사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대상에 대하여 직접 명하신 공의로운 심판이므로, 현대의 인종적·민족적 학살이나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

2. 가나안 진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1) 죄악이 관영하기까지의 오랜 기다림(약 676년)

‘관영’은 죄가 가득 차서 넘쳐흐르는 상태이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은 헛불 언약(주전 2082년)부터 가나안 입성(주전 1406년)까지 약 676년 동안 유보되었다.

창세기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레위기 18: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 혈통이 아닌 죄악에 대한 심판 – 라합의 구원

여리고 성에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 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히브리서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3) 우상숭배로부터 언약 백성을 지키시려는 목적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던 가증한 풍습 등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에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을 남기지 말라고 명하시고, 통혼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사사기 2:3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3-4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4) 여리고와 아이 성의 차이 – 첫 성읍의 특별한 구별

여리고는 특별히 헤렘에 붙여졌으나, 아이 성에서는 노략물과 가축을 취하도록 허락하셨다. 여리고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에서 얻은 모든 것이 인간의 전리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 준다.

신명기 20:1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찌니”

여호수아 8: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찌니라”

3. 가나안 족속의 울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다.

1) 아간 –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함(에덴의 반복)

여리고보다 작은 성읍 아이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다.

여호수아 7:5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륙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 여리고에서 몰래 취한 물건이었다.

여호수아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은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겼다.

아간의 범죄는 에덴에서 드러난 인간의 탐욕, 곧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한 죄악을 반복한 사건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 성에서 패배했고, 36명이 전사하는 대가를 치렀다.

2)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과 쫓아내야 할 족속을 남겨 둔 불순종

기브온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언약을 맺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시키며 함께 거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과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통혼과 우상숭배로 이어졌다.

여호수아 9:14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사기 1: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3: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4.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1)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던 심판으로서의 진멸 경고

말라기 4장 6절에서 ‘저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렘’(חָרַם)이다. 이 말씀은 돌이키지 않는 언약 백성과 그 땅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아래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말라기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2) 그리스도의 대속 – 저주를 대신 받으심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될 그 날

1) 아골 골짜기 – 심판에서 소망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은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속하는 날에 완성된다. ‘아골’(괴로움)은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셨다.

호세아 2:15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 소망은 마침내 온 세상에서 저주가 사라지는 날로 이어진다. 스가라는 그 날, 온 땅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어 더 이상 진멸의 심판이 필요 없게 된다고 예언한다.

스가랴 14:11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이 예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 저주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회복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과 거룩한 진멸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회복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이다.

요한계시록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삶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릴 뿐이라고 백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고린도전서 6:19-20 “...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²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역대상 29:14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 죄를 남겨 두지 않는 삶

성도에게는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끊고 버릴 책임이 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다.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늘 끊어내는 것이 순종이다.

빌립보서 2:12-13 “...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¹³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는 이미 그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 구속 완성의 그날까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강의 5 | 강정은 선교사**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시 136:1-26 /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외



시편 136:1-26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³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⁵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⁶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⁷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⁸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⁹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¹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²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³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⁴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⁵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⁶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⁷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¹⁹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⁰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¹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²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³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⁵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²⁶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창조의 우주적 역사에서 시작하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구속사, 그리고 개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까지 회고하며,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한다.

***인자하심**
히 ‘헤세드’(חֶסֶד)

인자, 자비, 사랑, 은혜, 긍휼, 충성
(mercy, steadfast love, lovingkindness, faithful love)

헤세드의 핵심은 “언약”에 있다.

1. 약속의 헤세드

헤세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브라함과 헤세드

(1)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헤세드

창세기 19:19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헤세드, חֶסֶד)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창세기 19:29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 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창세기 18:2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창세기 18: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헤세드

창세기 24:12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헤세드, חֶסֶד)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27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헤세드, חֶסֶד)와 성실(에메트, אֱמֶת)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에메트(אֱמֶת)

신실, 성실, 진리, 충실

헤세드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에메트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 하심을 뜻한다.

2. 신실함의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과 헤세드

헛불 언약 체결 636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자신의 헤세드를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다.

출애굽기 2:24-25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²⁵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15:13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헤세드, חֶסֶד)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34:6-7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헤세드, חֶסֶד)와 진실(에메트, אֱמֶת)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⁷ 인자(헤세드, חֶסֶד)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구속사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끝까지 이루어낸 역사이다.

3. 회복과 충성의 헤세드

룻과 헤세드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룻기 1: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기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에는 중요한 전환점마다 헤세드가 등장한다.

(1) 롯기 1장에 나타난 헤세드

롯기 1:8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헤세드, חֶסֶד)**하시기를 원하며”

롯기 1:16-17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¹⁷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구했고, 롯은 충성된 사랑으로 헤세드를 보여주었다.

(2) 롯기 2장에 나타난 헤세드

롯기 2: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헤세드, חֶסֶד)**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무를 자**
히 ‘가알’(גֵּאֵל)

속량하다, 구속하다, 친척의 역할을 하다

(3) 롯기 3장에 나타난 헤세드

롯기 3:10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 **인애(헤세드, חֶסֶד)**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롯의 헤세드는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에서 시작하여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희생적 헌신으로 완성되었다.

나오미와 롯,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더 큰 헤세드가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

다윗과 헤세드

다윗과 헤세드의 역사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된다.

사무엘상 20:14-15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헤세드, חֶסֶד)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¹⁵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헤세드, חֶסֶד)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사무엘하 9: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헤세드, חֶסֶד)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사무엘하 9:3-4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헤세드, חֶסֶד)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히 ‘로데바르’(רֹדֵבָּאֵר)

목초지가 없는 곳(황량한 곳)

사무엘하 9:7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헤세드, חֶסֶד)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8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헤세드(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헤세드(충성)로 보답한다.

사무엘하 19: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밭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결론: 완성된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와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헤세드이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카리스, χάρις)와 진리(알레테이아, ἀλήθεια)가 충만하더라”

헤세드는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룬다.

히브리서 9:15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헤세드의 깊이를, 부활은 헤세드의 승리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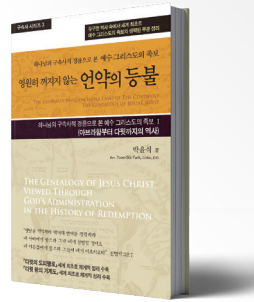
우리에게 맡겨진 헤세드

시편 50:5 “이르시되 나의 성도(하시드, תִּשְׁבָּד)를 너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강의 6 | 채희선 목사

다윗의 37용사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삼하 23:39 /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사무엘하 23:39 “헛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삼십 칠인이었더라”

다윗의 37용사가 기록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말년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긴 기록이다.

사무엘하 23: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전쟁의 승리나 왕으로서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 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 명단의 마지막에 우리아를 기록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다윗의 마지막 신앙고백과 같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동시에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용사들을 붙여 주셔서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 다윗의 37용사 분류표 >

구분	인물	내용	특징
첫째 세 용사	요셉밧세벳(야소브암) 엘르아살, 삼마	홀로 적군과 싸워 이김	승리의 용사
둘째 세 용사	아비새, 브나야, 무명의 1인	베들레헴 우물을 떠 옴	충성의 용사
30용사	아사헬 ~ 우리아	지휘관들	출신이 다양한 용사
전체	37명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는 용사

1.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가 되는 출발점

1) 다윗과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사무엘상 22: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울의 군대가 전국을 수색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지명 수배자인 다윗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울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을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찾지 못한 다윗을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발견하게 하셨다.

2)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다.

“그가 그 장관이 되었고”(삼상 22:2)에서 장관은 히브리어 ‘사르’(שָׂר)로, ‘지도자, 통치자, 군왕’이라는 뜻이다.

아들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장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예표한다.

2.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

1)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아들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과 빚, 그리고 마음의 상처(원통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종류	어려운 내용	문제 해결
환난 당한 자	환경의 어려움	환난으로부터 보호
빚진 자	경제적 어려움	물질 문제 해결
원통한 자	정신적 어려움	마음의 치유

2)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에서 훈련받은 모습이 있었다.

① 모든 사람이 각기 칼을 찼다.

사무엘상 25: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② 아말렉을 쫓아가 싸워 승리할 전투력이 있었다.

사무엘상 30:9-10 “... 다윗과 그와 함께한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는...¹⁰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인을 머물렸고 다윗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사무엘상 30: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3) 호칭에 변화가 있었다.

<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호칭의 변화 >

성경 속의 호칭	의미
환난 당한 자, 빛진 자, 원통한 자(삼상 22:2)	죄인 되었을 때의 옛 모습
다윗과 그의 사람들(삼상 23:5, 24)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윗의 용사들(삼하 23:8)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자
하나님의 군대(대상 12:22)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

4) 다윗의 37용사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역대상 12:22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힘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다.

3. 다윗의 37용사에게 나타난 충성의 특징

1) 출신과 환경을 초월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사무엘하 23: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사무엘하 23:39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삼십칠 인이었더라”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걸어 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생명을 건 충성의 상징이었다. 더욱이 다윗의 37용사 가운데는 이방인 헷 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삼하 23:39).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혈통을 넘어 충성된 자들을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실 것을 예표한다. 블레셋 진영을 뚫고 걸어 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모든 장벽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생각하게 한다.

2)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질문) 다윗의 공동체는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 동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① 같은 굶주림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을 따르는 삶은 안전과 풍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끊임없는 도피와 식량의 부족,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길이였다.

사무엘상 23:12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②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민수기 11: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공동체의 참된 연합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업적보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겼다. 우리아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자신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헤세드)를 평생 기억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신다.

1) 자신의 공로보다 함께한 사람들을 높였다.

다윗은 400명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사무엘상 30: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2) 인간의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다.

다윗은 37용사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 주셨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37용사의 명단 마지막에 우리아를 남긴 것은 죄 많은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헤세드)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3)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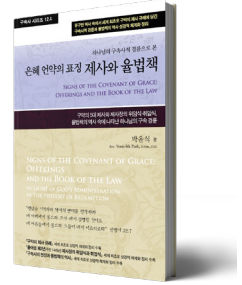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실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10여 년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한 것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함께 누렸다.

역대상 12:23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강의 7 | 박애늑 목사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 19:30 / 구속사 시리즈 제12권¹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완성**하는 모든 역사를 가리킨다.

성 구	내 용	의 미
창 2:1	‘다 이루니라.’ (히, כִּלְיוּן, 바이쿨루) ⇒ 천지와 만물의 창조의 완성	설계자가 계획했던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었다는 선포이다.
요 19:30	‘다 이루었다.’ (헬,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 구속의 완성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불하셨으며,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선지자)과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선포이다.
계 21:6	‘이루었도다.’ (헬, γέγοναν, 게고난) ⇒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다 끝났다’,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뜻으로, 죄로 오염된 첫 번째 창조 세계의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최종 선포이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τετέλεσται)**’로 ‘**텔레오(τελέω)**’의 현재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이 단어는 당시에 **세 가지** 상황에서 쓰이던 **상업적, 법정적 단어**이다.

- ① 상인이 물건값을 모두 지불받고, 영수증에 ‘**완불되었다**’라고 쓸 때
- ② 죄인이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을 때 ‘**형벌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 ③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고, 마지막 붓을 내려놓으며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은 실패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master plan, 기본 계획)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신 **‘완성자’**로 승리하신 것이다.

골로새서 2:14-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¹⁵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자이시다.- 율법과 선지자(예언)의 완성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

요한복음 12:49-50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⁵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함으로다 ¹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로마서 3:21 “이제는 율법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사도행전 28: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1) 율법(헬, νόμος, 노모스)

율법은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지만, 모세오경을 초월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마태복음 12: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요한복음 15: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바 저희가 연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1)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

율법의 **엄중한 규칙**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오직 한 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행하심으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에 이르는 수백(약 300)가지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내용	구약(예언)	신약(성취)
예수님은 성경대로 처녀(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	사 7:14	마 1:18-23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미 5:2	마 2:1-6
예수님은 성경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	호 11:1	마 2:13-15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사 11:1	마 2:23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사 9:1-2	마 4:13-16
예수님은 성경대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다.	사 53:4	마 8:16-17
예수님은 성경대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다.	시 78:2	마 13:34-35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슥 9:9	마 21:4-5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사 53:7-8	고전 15:3
예수님은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사 53:9	마 27:57-60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시 16:10	고전 15:4

2) 선지자(히, נביא, 나비/ 헬, προφήτης,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7:42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 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加減)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를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통역관**이요, **중계자**이다.

2. 예수님은 제사의 완성자이시다(구속의 완성).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씻기 위해 매년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야만 했다.

구약의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성별 된 삶의 축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제도이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줄 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함으로 매년, 매번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

히브리서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5대 제사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신령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반복되던 구약의 제사를 흠 없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것을 **‘단 번제(Once for all)’**라고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단 번제)**를 드림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없도록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1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¹¹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¹²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는 헬라어로 **‘에파팍스(ἐφάπαξ)’**로 ‘~위에’라는 뜻의 접두어 **‘에피(ἐπί)’**와 ‘단 한 번’을 뜻하는 **‘하팍스(ἅπαξ)’**의 합성어로 **‘단 한 번에 영원히’**라는 뜻이며 **‘단회성’**과 **‘영원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다(**롬 6:10, 히 7:27, 9:12, 10:10, 고전 15:6**).

이 단번의 제사로 우리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청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 외에 보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베소서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¹⁹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3. 예수님은 화목의 완성자이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화목이 깨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만물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만물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셨다.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골로새서 1:19-20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²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11-13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 시대 성막과 성전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일 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절의 벽**’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마가복음 15:37-38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³⁸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에베소서 2:14-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마태복음 27:50-51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⁵¹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구분 / 항목	옛 언약(구약의 구조)	새 언약(예수님의 완성)
언약의 중보	모세(피조물, 인간)	예수 그리스도(참 신, 참 인간)
제사의 성격	짐승의 피(반복적, 임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회적, 영원한 속죄)
효력 및 관계	외부적인 율법준수(행위 중심)	마음의 법과 신뢰(은혜와 믿음 중심)
성소의 접근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하루(단절)	모든 믿는 자의 자유로운 동행(개방)

4.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이시다.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서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곤**(ἀρχηγόν)’인데 원형은 ‘**아르케고스**(ἀρχηγός)’로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아르케**(ἀρχή)’와 ‘**이끌고 가다**’를 의미하는 ‘**아르코**(ἄρχω)’의 합성어로 ‘**시작하신 분, 창시자**’를 가리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텐**(τελειωτήν)’인데, 원형은 ‘**텔레이오테스**(τελειωτής)’로 ‘**완성자**’를 가리킨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안에 믿음을 시작하셨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격과 믿음을 완성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5:8-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과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완성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영역 / 구분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불가능)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심
제사	동물의 피로 매번 반복해야 함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
관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원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화목)
믿음	연약함으로 늘 넘어짐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견인하심

1) 율법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문자주의적 행함을 극복하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³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⁴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

성도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²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에 의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중간의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제는 중간의 대리자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나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예레미야 29:12-13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¹³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

세계적인 석학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관통할 때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명저(名著) 「구속사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연구 서적으로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최고의 책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성경 구속사 세미나'는 국내는 물론 해외와, 심지어 이슬람 권에서도 개최되어 성경 관련 최고의 세미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깊고도 영적인 연구,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세계적 업적”

원용국 박사

-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고고학회 명예회장
- 미국 Southern California대 신학박사



“저자는 성경 족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가, 본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손석태 박사

-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한국복음주의구약학회 회장
- 기독교학인회(ESF) 이사장, 한국 성서고고학회 부회장

“저자의 복음주의 신앙 사상을 대변하는
구속사 시리즈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브루스 월키 박사 Dr. Bruce K. Waltke

- NASB, NIV 성경 번역위원
- (前)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 교수, 달라스신학대학교 교수
- (現) 낙스신학대학교 교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시켰듯,
박윤식 목사를 세계 선교를 위해 3년 동안
지리산에서 연단시켰음을 확신한다.”

워렌 게이지 학장 Dr. Warren A. Gage

- 낙스신학교 구약학 교수 및 학장



약력

- 황해도 사리원 출생
- 총회신학교(학부) 졸업
- 국민대학교 기업경영학과 졸업
- 총회신학교신학원(목회학 석사)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 Lae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명예목회학박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장 역임
- Knox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 휘선 박윤식 목사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제 치하의 망국의 설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소명감으로 1950년대 후반 감리교단의 서리 전도사로 성역(聖役)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

이후 지리산 바위동굴 틈에서 3년 6개월 7일의 기도생활을 통해,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기도 에 전념하는 영적 수련과정을 거쳐, 평강제일교회의 기초인 ‘말씀 목회’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생동안 ‘오직 말씀’의 구호 아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펼쳤고, 1,800번 이상의 성경 읽기와 하루 두 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해 6만 5천여 명의 평강제일교회 성도와 국내외 300여 개 교회 개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정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매주 목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를 드리며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나라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없다”는 정신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성경 중심의 ‘말씀 목회’와 ‘애국애족’의 정신이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목회와 삶을 대변해 주는 양대 축이며, 이러한 전 생애가 압축되어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역작이 탄생된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의 육필 원고

“이 책 내용은 신·구약을 관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저자가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했다는
얘기를 듣고야 의문이 풀렸다”

원용국 박사
한국 성서고고학회장

저자는 1960년대 초 산상기도를 통해 기도와 성경읽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은 내용을 원고지 수천 장에 걸쳐 기록하여,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사’를 맥으로 집대성한 역작 『구속사 시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저자는 “원고지가 없을 때는 큰 침 이파리에 적었다가, 바스러지기 전에 원고지를 사와 옮겨 적었습니다.”라고 회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의 맥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낡은 원고지 속에 살아 숨 쉬는 듯합니다.



“이 책은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연구물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으면서, 성경을 1,800번
이상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강단에서 50여년 동안 선포
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여주 평강제일연수원 안내도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은 8만여 평의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좌측에는 에발산, 우측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리아 대성전을 비롯한 여러개의 성전과 기도처, 식당, 커피숍, 운동장, 기도 동굴 등이 구비되어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를 이루어 나갈 21세기 영성훈련의 중심지입니다.

에발산 (Mt. Ebal)



기도처
Prayer Posts



식당
Restaurant



커피숍
Café



안내
Information



주차장
Parking



텐트장
Campsite



모리아 성전 / 대성전

대성회 기간 중 모든 집회 및 행사가 진행되며 숙소로도 사용됩니다.



휘선 기도의 동산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안식처이자 그리심산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엔게디 동굴

연수원 내에서 가장 서늘한 장소이자 대표적인 기도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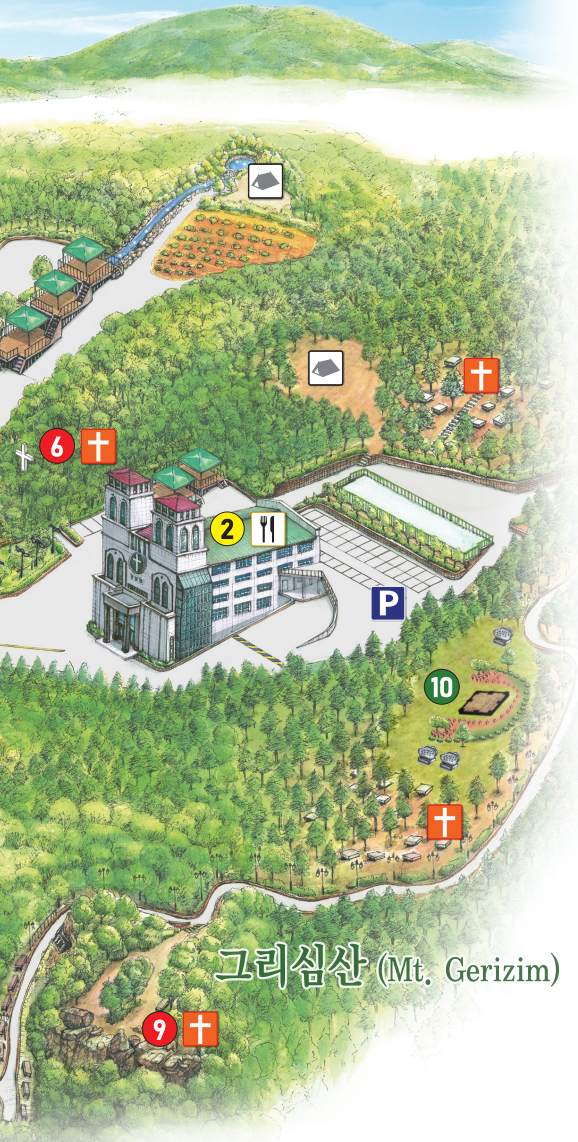


십자가 제단

대성회 기간 중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 운영합니다.

“나의 하나님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대하 6:40)

“Now, my God, I pray, let Your eyes be open
 and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ferd in this place.”(2 Chr 6:40)



그리심산 (Mt. Gerizim)

- 1 모리아 성전 / Moriah Sanctuary
- 2 시온 성전 / Zion Sanctuary
- 3 안나 성전 / Anna Sanctuary
- 4 시므온 성전 / Simeon Sanctuary
- 5 요나단 성전 / Jonathan Sanctuary
- 6 십자가제단 / Altar of the Cross
- 7 엔게디 (동굴 기도처) / Engedi Cave (Prayer Post)
- 8 갓세마네, 임마누엘 동산 (기도처)
Gethsemane, Garden of Immanuel (Prayer Post)
- 9 그리심산(기도처) / Mt. Gerizim (Prayer Post)
- 10 휘선 기도의 동산 / Huisun Garden of Prayer
- 11 특별전시실 / Special Exhibition Booth
- 12 막벨라굴 쉼터 / Cave of Machpelah
- 13 행복한 집 / Happy Home
- 14 두란노의 집 / House of Tyrannus
- 15 바울관 / Paul Hall
- 16 고등부 숙소 / High School Lodging
- 17 중등부 숙소 / Middle School Lodging
- 18 샬롬(커피숍) / Shalom (Cafe & Restaurant)
- 19 브엘세바(야외 커피숍) / Beersheba (Outdoor Cafe)
- 20 연수원 사무실 / Administrative Office
- 21 우림 (본부 및 의무실) / Urim (Headquarters & First Aid Station)
- 22 관리인실 / Custodians' Office
- 23 남자 샤워장 / Men's Shower Facility
- 24 여자 샤워장 / Women's Shower Facility
- 25 정문초소 / Main Front Gate

- | | | | | | | |
|--|------------------------|---|---------------------------------|---|---|---------------------------------|
|  | 화장실
Restroom |  | 의무실
First Aid Station |  |  | 샤워실
Shower Facilities |
|--|------------------------|---|---------------------------------|---|---|---------------------------------|



시온성전

3층은 식당으로, 2층과 4층은 숙소로 사용됩니다. 인원에 따라 4층도 식당으로 사용됩니다.



브엘세바

간단한 식사와 커피, 각종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쾌적한 교제의 공간입니다.



샬롬 커피숍

커피와 각종 차 및 음료가 준비되어 성도 간에 교제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샤워장 및 어린이 수영장

냉·온수 샤워가 가능하며, 샤워장 앞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 준비되어있습니다.

